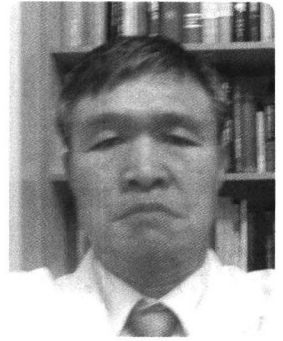




산업보건 관리에 고려수지침을 이용하자!



천 옹 희 소장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건강관리센터

산업

보건계의 원로 선생님들이 장성병원에서 석탄공사의 보건관리를 하면서 시작된 시점의 직업병은 대부분 진폐증, 소음성난청이 대중을 이루었고 지금도 그렇다. 5.16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유기용제 중독이 대두되었고, 중금속 중독 및 여타의 직업병이 소개되기도 했으나 숫자는 전체 직업병 숫자에서 미미하다. 1990년대 이후에 사무실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그 발생은 사무실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에게서 다수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다 -“아플 새도 없다”- 라는. 과거에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한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한평생 농사를 지어서 온몸이 쭈시는 그런 호소. 그때와는 근로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진폐증, 소음성난청, 유기용제 및 중금속 중독은 작업환경 관리를 잘하면 그 발생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은 그 발생이 특정 업체에 다수 발생되고 있고, 인간공학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2003년 춘계 산업의학회 심포지엄에서 인하의대의 “임종환”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스웨덴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의 산업재해 보상비의 과다지출로 인해 산재보험 회사가 파산하기에 이르렀다는 발표를 들은바 있다. 현재는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고 산재보상이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1975년 대한민국에 “유태우”라는 침구(鍼灸)사가 있어서, 그 분이 우연한 기회에 그의 손에서 온몸의 장기와 연결되는 경락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고려수지침”의 시작이다. 그것은 경이로운 발견이었다. 최초엔 손바닥에 작은 침을 꽂아서 시술을 했으나, 지금은 알루미늄 판에 볼록하게 돌기를 만들어 이것을 손바닥 또는 손등의 경락에 부침으로 해서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침이라고 하기엔 적절치 않다(서암봉이라고 부른다). 이 고려수지침의 효과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대체로 내과적 질환(수술을 해야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아닌)에 유효하다고 보면 된다. 필자는 수지침 요법을 자주 이용하는



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시술을 하여 효과를 본 바 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은 효과가 탁월하다. 고려수지침은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서 외국의 많은 의사들도 한국에서 수지침을 배워가서 시술하고 있기도 하다. 대체의학이라 일컫는 것에는 “고려수지침”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포천중문의대는 대학원 과정에 대체의학 강좌가 있기도 하다.

대체의학에 대해 많은 의사가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다. 나 자신도 고려수지침을 알고 나서 스스로 시술을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내 자신이 효과를 경험해보질 못했으니까. 지금은 가족은 물론 주위의 지인들에게 시술해 주고 있고, 건강진단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에게 시술해주고 있다. 서양의학을 전공한 이가 그런 동양의학에서 시술하는 것을 시술해서 되겠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려수지침은 정통 동양의학에 포함되는 분야가 아니며, 1975년에 유태우 박사에 의해 창시된 순수한 국산 시술법이다. 또한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시술 비용도 여간 싼게 아니다. 1회의 시술 비용(1개의 서암봉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이 가장 싼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50원이다. 담배 한 개비 비용 정도(이것은 재사용이 가능하다)이다. 그 이론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의사라면 1시간 강으로 충분히 기초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초적인 시술은 산업의학 전문의가 건강진단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호소 대부분에 대해 시술을 해줄 수 있다.

간호사를 교육시키면, 보건관리대행 시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직업병 진단을 하고, 산재요양신청을 하고, 며칠간이라도 결근을 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산업보건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여러분들이 고려수지침 시술을 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와 근골격계질환의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한민**